



경자년 설 선물 키워드는

#밀레니얼 #프리미엄 #1인가구

경자년 설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다.

국내 주요 백화점과 유통업체, 제약사들은 평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설 선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건강을 고려한 건강식품부터 차례상에 올릴 간편식 선물세트,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생활용품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백화점·마트업계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SNS에서 인기몰이중인 상품·브랜드와 협업한 이색 상품을 선보이려는가 하면, 자사 PB 상품을 프리미엄화한 상품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

표적인 예로 현대백화점은 ▲소보코 ▲부영이 곳간 ▲살롯 등 온라인상에서 핫할 7개 브랜드와 협업했다. 이마트는 백화점급 프리미엄 선물세트 '피코크 시그니처'를 앞세워 프리미엄 선물세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20년 설을 맞아 신상품 5종을 포함한 피코크 시그니처 선물세트 36종을 선보이는 것.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대형마트에서 프리미엄급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와인 선물세트도 인기다.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른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내추럴·비건 와인이란 화학비료나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포도를 사용하거나, 숙성 과정

중 동물성 화학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와인을 선호하는 추세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명절문화가 간소화됨에 따라 작은 분량으로 소포장된 정육 및 수산물 선물세트도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처음 선보였던 200g 단위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가 조기 완판되자 올해는 품목과 수량을 늘린 총 12개 품목, 1만 4000세트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손질된 가자미·굴비·갈치 등을 150g씩 개별 포장한 '헬로 피시 세트' 등 소포장 상품 물량을 지난해 추석보다 30%가량 늘렸다. 해당 선물세트들은 혼밥족, 혼설족들이 에어프라이어 등을 이용해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선물세트의 꽃 '한우'부터 '와인'까지 총집합

이마트

행사카드 적용시 최대 40% 할인 혜택

2020년 경자년 설을 앞두고 이마트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해당 기간동안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인기 선물세트를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 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롯데/IBK 기업/씨티/광주/전북/SC은행이마트카드)로 구매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 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5만원 미만 선물세트로는 '가성비 와인'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5~10만원대 세트로는 다양한 수산세트가 대표적이며, 10만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선물세트의 꽃 '한우'가 제일 인기다.

구이용과 국거리/불고기 각 1kg으로 구성해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 /이마트

장 활용도가 높은 '피코크 한우 냉장 1호세트'는 행사카드 구매시 10% 할인한 22만5000원에 판매 하한다.

한우 갈비와 국거리/불고기에 양념소스까지 같이 구성된 실속 선물 세트 '한우 혼합 1호'는 카드 할인 10%를 적용해 17만8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전국서 엄선된 프리미엄 세트 선물하세요”

롯데마트

과일 본연의 가치 '맛'에 집중

롯데마트가 과일 본연의 가치인 '맛'에 집중한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혼합세트는 품질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일반적인 선물세트의 크기인 사과 300g 내외, 배 600g내외보다 약 30%가량 큰 크기인 사과 380g내외, 배 800g내외의 대과로만 선별했다.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는 배 6개와 사과 8입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15만8000원이다.

이밖에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산지특심 충주 GAP사과'와 '산지특심 천안 GAP 신고배' 과일세트를 선보인다.

'산지특심'이란 롯데마트가 전국 산지에서 '특심'을 가지고 정성껏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우



수 로컬 상품 생산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롯데마트 이성용 과일팀장은 "이번 설에는 과일의 생산량과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일 본연의 가치인 '맛'에 초점을 두고 준비한 황금당도, 산지특심 선물세트로 품격 높은 선물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SNS서 핫한 이색선물... 2030세대 인기예감

현대백화점

전통 식품 현대식으로 재해석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와 협업해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협업에 참여한 브랜드는 '소보코', '부영이 곳간', '살롯' 등 7개 브랜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을 겨냥해 이색 명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현대백_고리1919 100주년에디션 /현대백화점그룹

"특히 20~30대 고객들에게 인기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전통 식품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전통 고추장의 맛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볶음 고추장 브랜드 '소보코'의 '베스트 세트(5만5,000원, 한우·전복·새우볶음 고추장 각 250g)', 첨가물을 뺀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장과 조청으로 유명한 '부영이 곳간'의 '조청 2종 세트(5만원, 더덕도라지·생강 각 200g)' 등이 대표적이다.

무궁화 꽃·솔잎·백년초·오미자 등 국내산 재료로 만든 '살롯'의 '우리나라 담금주 키트(6만원, 2구)'도 눈에 띈다. 살롯은 국내 최초 담금주 키트 브랜드다.

해의 유명 뷰티·생활용품 브랜드와 협업한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대표 선물세트는 이탈리아 명품 치약 브랜드 '마비스'의 기프트 세트, 이탈리아 웨이빙 전문 브랜드 '프로라소'의 웨이빙 세트, 이탈리아 수도원 천연 화장품 '카말돌리'의 수도사 화장품 운구엔품 세트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만원이하부터 10만원이상까지 '폭넓은 가격대'

홈플러스

두 가지 이상 품목 혼합 구성... 실속 ↑

홈플러스는 설을 맞아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대표상품으로 정육은 명절 수요가 가장 많은 갈비와 제수용 정육으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정육 갈비혼합 냉동세트'(갈비찜용 0.9kg, 국거리 0.8kg, 불고기 0.8kg, 14만8000원)를 비롯해 'LA식 꽃갈비 냉동세트'(미국산, 1.4kg*2, 10만3200원),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미국산, 광양식 소불고기 1kg, 인양식 소불고기1kg, 7만원)를 마련했으며, 과일은 100% 비과과 당도선별로 엄선한 '명품명선 나주배 세트'(7~10입, 5만9900원)와 '명품명선 사과 세트'(11~13입, 5만9000원)를 선보인다.

수산에서는 산소포장 특히 기술로 선도를 높인 '건강을 담은 완도전복세트'(7~9마리, 1kg, 9만9000원), '바다속그대로 완도전복세트'(10~13마리, 1kg, 4만9900원)를 시중 대비 25% 저렴하게



마련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식에선 '잣품은 고급견과세트'(잣 25g*12, 땅콩 25g*12, 대추칩 10g*12, 마카다미아 25g*12, 호두 20g*12, 6만9900원)를 5000세트 한정으로 백화점 동일 구성 상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두 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 구성해 실속을 높인 세트도 눈길을 끈다. '멀치 견과 혼합세트'(볶음용 120g, 볶음조림용 110g, 아몬드 310g, 호두 210g, 국내산 보리새우 50g, 3만5900원)는 최근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멀치와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함께 구성해 가성비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